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30.(화) 9:30
(지 면) 2025. 12. 30.(화) 석간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

- 위기경보 ‘주의’ 단계 해제 및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종료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, 12월 30일(화)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었다고 밝혔다.
-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후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, 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’에서 ‘위기상황대응본부’ 및 ‘위기상황대응팀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.
- 특히, 1등급 시스템 40개를 포함하여 국민 생명·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,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견인했다.
-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‘주의’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.
-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,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.
-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·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공 정보화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특히, 민간에 비해 일부 미흡했던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,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체계(DR)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 대응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밤낮 없이 복구작업에 매진해 준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”고 밝히며,

○ “이번 일을 교훈 삼아,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인공지능정부실	책임자	과 장	조원갑 (044-205-2702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강 (044-205-2720)
	인공지능정부실 디지털보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경직 (044-205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진승주 (044-205-2830)

